

## 노인의 가르침을 버리고

(역하 10:01-15)

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대단히 중요합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. 이 남북분단의 역사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.

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.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기 위한 세력 구축에 나섰습니다. 르호보암은 그의 왕정 정치 초창기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의 선택 방안을 그 앞에 놓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선택 방안은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돌아 온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그리고 정치 연로자들이 추천하는 방안입니다. 다른 방안은 젊은 정치인들이 제시한 방안입니다. 그러나 르호보암은 정치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였습니다. 이러한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마침내 북 이스라엘은 시리아에, 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.

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땅 위에 태어난 자들은 모두 르호보암과 같이 삶의 목적을 가집니다.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정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.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(렘6:16)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지식과 사상들입니다. 두 가지 다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. 최상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.

왜 르호보암은 정치연로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까? 한 마디로 르호보암의 편견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을 좋아하고 이것들을 따라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왜 이러한 편견들을 가집니까? 자존심 때문입니다. 오늘 복음이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이유도 르호보암의 경우와 동일합니다.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들이 근원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(막1:14-15;시51:5;롬3:9-10,23/요3:3,5;요14:6;행4:12) 그래서 자존심이 상합니다. 르호보암이 정치 원로들의 제안을 버렸던 것 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안을 버립니다.

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? 르호보암 처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여 두신 옛적 길, 구원의 길을 버릴 때 그 나중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제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